

트로트의 부활... 전국 홀린 진도 출신 송가인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송가인 (33·본명 조은삼·사진)씨가 화려한 이력 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도 출신인 그는 중앙대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뒤 7년 전부터 정통 트로트가

송씨는 최근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에서 '이번 없는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판소리의 맥을 잇는 목소리와 폭발적인 고음으로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낙점돼 왔다.

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 첫 앨범을 내기 전까지는 '국악인 조은삼'으로 살아왔다.

"진도 전통문화를 계승해온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포 박금희 명장을 사사했어. 오빠와 광주 예술고, 중앙대를 함께 다니면서 '남매 국악인'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송씨는 '광양 남해성 전국 판소리경연대회' 대상(2009), '목포 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관광부 장관상(2011) 등을 받으며 국악인으로서도 탄탄대보를 걸어왔다.

그러던 차에 '전국 노래자랑' 등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면서 송씨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트로트계 데뷔 7년을 맞은 그는 앨범 3장을 내고 지난해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성인가요 여자 신인상', '4회 대한민국

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성인가요 신인상'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미스트롯"의 강력한 우승 후보 송씨도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순간이 있었다. 수많은 누리꾼들이 SNS 등을 통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정작 송씨는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

"실수 없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무대에 쏟았기에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역 감정이 섞인 비방성 댓글들을 마주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주눅들 때마다 제게 힘을 준 건 관객들이었어. 지난 3월 열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에서 만난 고향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다녀온 경남의 한 공연장에서는 '기운 내라' '꼭 우승하라'는 응원을 들었는데 그동안의 피로가 정말 씻은 듯이 사라졌습

니다." 송씨는 꾸준히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의 팬카페 회원은 최근 4000명이 넘었다.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제가 '소리의 고장' 진도에서 나고 자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객들의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되고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광주·전남 지역민을 포함한 팬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게요."

송씨는 오는 6월8일 광주 출신 속행(40) 등 미스트롯 출연진과 함께 전국 투어의 하나로 광주 무대를 갖는다. 이날 '한 많은 대동강', '유승산 엘레지' 등 인기곡들을 부를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진도=박현경 기자 hypark@

판소리 전공 후 7년째 가수 활동... 오디션 프로 결승까지 어머니 송순단 씨 국가무형문화재, 오빠도 국악인 각종 대회 수상·행사 섭외 1순위... 차세대 트로트 스타

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 송순단(60)씨는 국가무형문화재 72호 진도씻김굿 전수조교이며, 아쟁을 연주하는 오빠 조성재(36)씨는 국악연주단체 '바라지'에 소속돼 국내외에서 활발히 공연하고 있다.

'행사 섭외 1순위'로 꼽히는 송씨는 오디션 연습과 공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자와 통화한 지난 29일 밤에도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공연을 막 끝낸 참이었지만 특유의 발랄함과 상냥함을 잃

전남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시급

목포서 발전방안 모색 포럼, 상품 개발·유통 시스템 마련

전남의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경쟁력 향상, 해양바이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검사기관 지정, 기술 매칭·기술 거래·마케팅 컨설팅 등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이 해양바이오산업의 자원인 해조류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있다는 점에서 일반식품, 기능식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센터,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주최한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포럼'이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실장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기회', 조승목 부경대 교수 '해양자원 기능성 소재 개발과 산업적 활용 방안', 차형준 포항공대 교수 '해양바이오 산업신소재 연구 및 산업분야 동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허호진 경성대 교수가 '전남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향', 이광재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이 '전남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최상덕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장 등이 참석해 가운데 토론도 계속됐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전세계적으로 최근 식품, 의약, 화학, 에너지, 서비스 등과 연계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5400억원(2016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39억~43억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큰 기술격차,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기반산업 취약, 연구개발 투자 미흡, 작은 국내 시장 규모 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전남은 김류의 80%, 미역류의 96%, 다시마류의 97% 등 해조류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고 있다.

허호진 경성대 교수는 "전남이야말로 해양바이오산업의 적격지"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투자와 규제 철폐를 통해 많은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광재 여시재 원장은 "지방정부와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이 네덜란드 바네링언 푸드밸리를 참고로 해 해양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금 및 투자 네트워크, 창업 보육 및 육성 시스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키히토 일왕 퇴위 "행복했고 감사했다"

30년 3개월만... 오늘 나루히토 즉위 '레이와'로 연호 변경

일본의 제125대 아키히토(明二) 일왕이 30일 재위 30년 3개월 만에 "지금까지 행복했고, (일본)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5시 도쿄 지요다의 고쿄(皇居) 내 영빈관인 '마쓰노마' (松の間)에서 약 10분간 마지막 퇴위 의식(退位禮正殿の儀)을 치렀다. 이 의식에는 나루히토(德二) 왕세자를 비롯한 왕실 인사들과 아베 신조 총리 등 중앙정부 각료, 국회 의장단,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텐노 헤이카(天降陛下·일왕에 대한 경칭)는 '고고사마'(皇后さま·왕비에 대한 경칭)와 함께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내일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의 변인 '오코노미' (お言葉)를 통해 "오늘로 텐노(天皇)로서의 직무를 마치게 됐다"며 "즉위로부터 30년, 지금까지 텐노로서의 역할(소임)을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식을 끝으로 아키히토 일왕은 1989년 1월 7일 선천인 쇼와(昭和·1926~1989) 일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지 30년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일왕의 생전 퇴위는 에도(江戸)시대 후기인 1817년 고카구(光格) 이후 202년 만에다. 일본이 헌정 체제(1890년)에 들어선 후로는 처음이다.

아키히토 일왕의 뒤를 잇는 나루히토 새 일왕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분 가량 마쓰노마에서 첫 즉위 행사를 치른다. 이 의식은 청동검과 청동거울, 굽은 구슬 등 이른바 '삼종신기'(三種の神器)로 불리는 일본 왕가의 상징물을 새 일왕이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사다. 이 가운데 굽은 구슬만 원래 물건이고 검(劍)은 대체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연호는 5월 1일 0시를 기해 아키히토 일왕의 헤이세이(平成)에서 나루히토 새 일왕의 레이와(令和)로 바뀐다. /연합뉴스



산업위기대응 현장간담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현장간담회가 30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열린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등 참석자들이 국가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다.

본사 인사 <편집국> 윤영기 : 편집국 체육부장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금당공인증개사... 저하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투자·매도·교환... 상가건물... 특급물건

신창동 근린상가...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당 디펜스... 010-3598-7080